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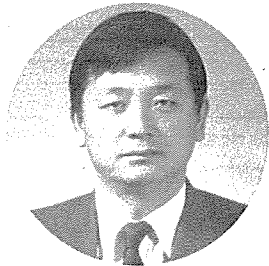
文

明

의

明

暗



김 두 일  
(大宇중공업 이사)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로 술과 담배를 한꺼번에 끊은지 벌써 6년이 된다. 보통 정도가 아니고 워낙 호주, 애연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섭섭한 표정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정도 절제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딱 끊을 필요가 있어?」

「아니,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던가? 천주교는 다 해도 괜찮다는데……」

「그렇게 갑자기 급변하면 건강에도 지장이 있을꺼야.」

의외로 친구들의 따져묻는 추궁이 강세가 되자 나는 별수 없이 성서를 뒤져 보았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 놓은 것은 없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성의 기호품이랄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성의 기호품은 그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리트머스 페이퍼처럼 칼라가 달라지게 된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면 선이 되고 그렇지 않게 쓰여지면 악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술이 소화기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소화를 돕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것은 선일 것이며, 그것이 양심을 마비시키는데 사용되거나 나쁜 길로 유혹하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신의 창조물이 인간의 손에 쥐어질 때, 그것은 선한 용도 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에 쓰여지는 수가 더 많은 것 같다.

특히 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술마시는 방법 속에서는 마음 약한 사람이 손해 보게 마련이다.

야무지고 약은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는 마시지 않으면서 남에게 마시우는데 명수들이다. 마구 떠들거나 남의 욕을 하거나 좌중의 시선을 홀으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마시라고 욱박질러 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제가 궁색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앞에 놓인 잔이 부담스러워서 훌쩍훌쩍 비우다가 흠뻑 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차를 가게되고 몸은

플병이 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술을 딱 끊어버린 이유는 바로 술자리에서 도저히 야무질 수 없는 나의 성격 때문이었고 도저히 술을 선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쌓아 올리는 과학과 기술의 탐을 생각해 본다.

성서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를 닮게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처럼 창조하는 능력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생활에 유익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명하고 창조해왔다. 아무도 인간의 불행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인간의 위대한 노력들은 자꾸만 악한 곳에 이용되고 있다. 노벨이 한탄했던 것처럼 광산개발을 위해서 발명했던 폭약은 인간의 살상을 위해 사용되었고, 라디움 발견은 핵폭탄 제조로 연결되었으며 배와 비행기는 군함과 폭격기로 둔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은 더욱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거기에서 또 어떤 악의 세력이 인류를 덮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초성능의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능력을 가속화시켰으나, 언젠가는 또 저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인간통제 시스템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공해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와 질병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맹렬하게 파고드는 생명공학은 이미 유전자의 조작으로 쌍둥이의 생산, 동식물의 합성까지도 해내고 있다.

마침내 인간은 인간을 공장에서 제조하고 무기로 쓰기 위하여 공통 같은 피수를 대량 생산해 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어린이의 만화, 티샤쓰의 그림에서부터 조립식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공통시리즈가 판을 치고 있다.

과연 인간은 이러한 기술적 결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미 그것에 대한 과거의 실적은 분명히 (NO)의 싸

인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은 모든 선한 창조물을 악의 목적에 이용해왔다. 군대는 날로 비대해지고, 무기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한번도 그것을 들여보았다는 기록은 인류 역사상에 없다.

마치 술이 선한 용도에 쓰여지는 사례는 아주 적고 대부분의 범죄가 술에서 시작되고 술과 함께 터지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의 운명도 아예 비관적인지 모른다.

공해문제만 해도 그렇다. 공해란 바로균형의 파손이며 그것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가지려는 자가 욕망을 절제 못할 때 인간은 많이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구분된다. 못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남는쪽에는 문제가 생긴다.

남으니 소비해야 하고 소비 하자니 낭비해야 한다. 작은 차도 뿔터인데 큰 차를 타고, 비싸게 먹기 위하여 먼곳으로 가야하고, 너무 먹어서 또 그 에너지를 어디엔가 버려야 한다.

공해란 무엇인가. 탐욕의 쓰레기이다. 먹어도 먹어도 남는 사람들이 가구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꾸고 차를 바꾼다. 그러기 위해서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증설된다.

과연 인간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일까? 필자도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 속하는 엔지니어로써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정말로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 절제될 수 없다면, 우리 기술자 모두가 술을 끊듯이 아예 연구고 개발이고 다 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오늘도 과학자와 기술자의 선한 노력은 계속된다. 아무리 인간들의 탐욕이 끝없는 암흑속에 출렁거리더라도 과학과 기술은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과학자와 기술자는 어둠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창조의 외로운 길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이여, 당신의 빛이 이 세상 어둠을 밝혀주소서.」